滅聖諦만이 第一義諦

〈멸성제〉 〈제일의제〉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㉕ 멸제(滅諦)

"세존이시여,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 가운데에서 세 가지는 항상함이 없는 무상(無常)인 것이요, 한 가지만 항상한(常)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세 가지 진리(三諦)는 유위(有爲)의 모양(相)에 들어가는 것이니, 유위의 모양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항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함이 없는 것은 바로 허망한 법이며, 허망한 법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非諦), 항상한 것이 아니고, 의지할 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제(苦諦), 집제(集諦), 도제(道諦)는 제일의제(第一義諦)가 아니며, 항상한 것이 아니며, 의지할 데가 아닙니다."

사성제 가운데 무상(無常) 유상(有常)으로 각 제(諦)의 성격을 밝힌 대목이다. 고제(苦諦), 집제(集諦), 도제(道諦)는 항상함이 없는 것이고 멸제(滅諦)만이 항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멸제(滅諦)를 제외한 3성제(三聖諦)는 유위의 모습이라 하여 최후의 궁극적인 진리(第一義諦)가 아니니 의지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정제의 설명과 다르게 각 제(諦)의 성격을 분석하여 유위의 모습과 무위의 모습으로 나눈 특징이 보인다.

사성제는 불교 교리의 핵심이다. 불교의 인생관이나 생활관을 사성제를 통하여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법문이다. 특히 불교의 시작이 고(苦)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고제(苦諦)의 인식이 중요하다. 사성제(四聖諦)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후 5비구를 위하여 처음 설한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도 하지만 불교의 모든 수행관이 이 사성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화엄경〉 안에도 '사성제품'이 있다. 특이한 점은 〈화엄경〉의 '사성제품'에서는 세계마다 다른 사성제의 이름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다. 사바세계를 비롯하여 밀훈세계(密訓世界), 최승세계, 이구세계, 풍일세계 등 시방으로 전개되는 10세계마다 10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소개한다. 고(苦)를 죄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고 가시(刺)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 현실을 고통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고(苦)에는 싫어하는 감정과 공허하다는 느낌의 두 가지 뜻이 포함된다고 한다. 사정제의 마지막 '멸(滅)'이 이른바 소멸인 멸인데 이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고(苦)는 열반의 반대말이 된다. 열반에서 얻어지는 상(常), 낙(樂), 아(我), 정(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전부 고(苦)인 것이다. 경론에 따라서 고(苦)의 설명이 차이가 있다. 보통 4고(四苦), 8고(八苦)로 고의 종류를 설명하지만 18고설(十八苦說)도 있으며 〈유가사지론〉에서는 110가지의 고를 나열하고 있다. "모든 것은 고(苦)다(一切皆苦)"를 삼법인(三法印)에 넣기도 한다.

이러한 고(苦)의 개념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무자성(無自性)이나 공(空)이라는 말이 나와 고(苦)도 공한 것이고 자체 성품이 없는 것이라 고정적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하여 고(苦) 속에도 낙(樂)이 있고 번뇌 속에도 깨달음이 있다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설이 나오기도 했다.

'유위의 모양'이란 생멸인연을 두고 하는 말이다. 멸제를 제외한 앞의 삼제(三諦)는 유위이고 멸제(滅諦)만 무위라는 말이다. 유루(有漏)와 무루(無漏)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따라 생멸변화를 갖는 것을 유위(有爲)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무위(無爲)라 한다. 허공이나 열반 등을 무위법이라 한다. 무위법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사상(四相)을 떠나 있는 것이다. 〈승만경〉의 이 대목의 주장은 멸제(滅諦)만이 무위라는 것이다. 대승의 수행이나 선종의 수행에서도 무위심을 강조하였다. 조작하는 마음이 아닌 함이 없는 마음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경〉의 '무주상' 법문처럼 상(相)이 없는 수행이 이루어져 모든 집착을 떠나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해야 도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위에 자취가 남지 않는 것을 본분의 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무위의 마음이라 했다. 어떤 격식을 넘어선 일상의 모습을 수행과 연결 지어 말할 때 일반적으로 써온 말이 무위심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세음보살 공덕·형상 떠올리세요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㊽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염불 수행을 할 때도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공덕을 염(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은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음탕한 욕심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손히 공경하면 곧 욕심이 떠남을 얻으며, 만약 성냄과 분심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것이 떠남을 얻으며, 만약 어리석고 미련함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이 떠남을 얻느니라"고 한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염불하면 그 공덕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멀리 여의고 괴로움을 벗어나 복락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이르기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것들의 큰 위엄과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 넉넉히 이익 되게 하는 바가 많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은 항상 응당히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고 관세음보살님에겐 신통의 힘이 크기 때문에 염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관(觀)의 대상은 부처님의 형상

불자 여러분! 염불 수행을 할 때 관(觀)의 대상은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구족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관상염불을 할 때 관의 대상은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관할 때, 칭명(稱名)하면서 앞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의 원만한 상호를 관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광명으로 내 몸을 비추는 형상을 관상하면서 칭명염불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게 되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떠올리면서 염불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관상염불은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수승한 공덕과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칭명 염불하는 것입니다.

관상염불의 경전적 근거

불자 여러분! 이 관상염불(觀像念佛)이 탄생하게 된 것은 〈대보적경〉에 전거(典據)를 두고 있습니다. 〈대보적경〉에서 "부처님의 인행시(因行時) 가운데 대정진보살로 있었을 때 비구가 그린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발심하고 출가하여 모직물에 그린 불상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 관찰하였다. 이 그린 불상을 관찰하여 여래와 다르지 않게 하여 다섯 가지 신통을 성취하였고, 보광삼매(普光三昧)를 얻어 시방의 부처님을 친견하였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관상염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관상염불(觀想念佛)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모습과 공덕상 중에서 한 가지의 상(一相)만을 관하는 염불 수행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신(全身)의 모습을 관하는 염불 수행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상을 관하는 관상염불 수행법은 〈관불삼매경〉에 전거(典據)를 두고 있습니다. 〈관불삼매경〉에서 "부처님께서 부왕(父王)을 위하여 백호관(白毫觀)을 설하셨다. 다만 미간에 있는 백호상을 관하는데 오른쪽으로 돌아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마치 가을 달과 같고, 열 가지 위엄을 성취하고 내외가 통명(通明)하여 유리로 만든 통(筒;대롱)과 같으며, 또한 그믐밤에 밝은 별과 같이 관하여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를 막론하고 90억 항하사 미진수겁과 같은 많은 생사의 죄를 멸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라고 설한 내용에 근거하여 탄생한 염불 수행법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㉕ 고귀한 구함의 경 2

침묵이 곧 '스승'이다

"(라마뿟따가) '존자여, 이와 같은 존자를 동료 수행자로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다행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스스로 알아 깨달아 성취하여 주장한 그 가르침을 존자는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습니다. 존자가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 그 가르침이 내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한 가르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아는 가르침을 존자가 알고 또한 존자가 아는 그 가르침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처럼 존재 역시 그러했고 존자처럼 나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십시오. 존자여, 우리 둘이서 이 무리를 수호합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웃다까 라마뿟다는 나의 스승으로서 오히려 제자인 나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나에게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머무는 한, 그의 가르침은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나는 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싫어하여 그곳을 떠났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에 묶임을 보시고 출가하시어 두 명의 스승을 찾으셨다. 첫 번째 스승 알라라 깔라마에게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성취하셨고, 두 번째 스승 웃다까 라마뿟다에게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성취하셨다. 찾고, 구하는 한 성취가 존재한다. '내가 묶여있다'는 말과 '내가 성취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무언가를 좇는 한 그 성취가 다시 묶임이 되는 것을 바로보기 어렵다. 스승을 찾는 일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다.

성취에 머무는 한,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의 참뜻을 알 수 없다. 성취는 누가 이름하는가? 성취가 끝이 없듯이 의식 또한 끝이 없다. 의식은 거친 것을 쥐었다 놓고, 덜 거친 것을 쥐었다 놓고, '아무것도 아닌 세계'를 쥐었다 놓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세계'를 쥐었다 놓았다 이름하지 하지 않고도 미세하게 쥐고 있다. 없는 손으로 쥐고 있는 줄 모르고 쥐고 있다. 환의 세계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높이 올라보아도 그것은 그저 환의 세계일뿐이다. 이렇게 알면 '아, 이것이 환이구나' 할 뿐, 환의 세계를 성취했다는 말도, 그 환의 세계를 어떤 세계라 따로 부를 이름도 필요치 않다.

삼라만상은 환이다. 환을 환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적정처가 존재할 수 없다. 한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 낱말들이 떠다니는 그곳이 바로 적정처임을 바로보기 위해서는 성취하고 구하는 자가 침묵으로 사라질 수 있어야 한다. 침묵이 스승이고, 침묵이 곧 '스스로'이다. 환의 세상에 환으로 움직이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나'라고 부를 수 없어 안팎이 따로 없이 고요할 때, 그 모름의 침묵이 완전한 자유가 된다. 삼라만상 속 몸과 마음에 갇혀 생각과 느낌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 싫고 좋음에 묶이는 것을 싫어하여 떠날 수 있다. 그 느낌이, 그 생각이 내가 아님으로 침묵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굳건할 수 있다. 굳건함으로 지킬 수 있다. 아무 노력 없는 정진, 새김, 집중, 지혜가 바로 그 지킴이다.

뛰어넘어 보라.
걱정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근심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불안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초조를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태어남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늙음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병듦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죽음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항상 지금이 뛰어넘어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이 아닌 지금 뛰어넘어야 한다.
고요히 있든, 경계를 만나든 뛰어넘으라고 신호를 준다.
그 때 머뭇거림 없이 바로 뛰어넘어야 한다. 그럼 모든 것이 끝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